

제 196 호

연중 제21주일

1976. 8. 22.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시대의 지표□

● 칼론 ●



“주님! 믿으며 또 알고 있습니다.”

김 병 환 신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다. 믿음이 없는 사회생활은 영위될 수 없기에 믿음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우리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삶의 근거이며 지포가 되는 믿음은 바로 당신을 제시하시는 하느님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불신의 실존적 결단을 내리길 요구하신다. 또 한편 그분의 말씀에 조건없이 신뢰하는 신앙은 하느님의 선분이심도 강조하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조건없이 신뢰하기란 조그만한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하고 불평하면서 실망하여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씀을 거부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예수께서는 “내 말이 귀에 거슬릴까? 만일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당신들이 본다면……?” 하고 질문하신다. 환언하던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나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의 선포로 보기 보다는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신앙과 회개를 바라는 요청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정성과 감격을 다해서 마음에 새길때 그분은 구원을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약속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육의 차원에 속한 우리는 높고 깊은 심오한 영적 오의(奧義)를 풀 수는 없다. 다만 의심없이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며 푸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나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요한 1,4-6) 하신 주님의 말씀은 만인이 걸지 않으면 안될 인생의 길이며 이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총두리쳐 불태워야 하는 진리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조그마한 두뇌로 주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대항하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실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기를 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또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신앙은 지식이나 이해에 선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

〈전주 중앙 전주교회 보좌신부〉



굶주린 자는 그리스도

「성체와 인류가족의 굶주림」을 주제로 한 제41회 국제 성체대회가 독립 200주년을 맞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끝났다. (1976. 8. 1-8)

전세계 100여개국의 100만여명의 크리스찬들이 참석한 성체대회는 기아(飢餓), 가정생활, 자유와 정의, 성직자와 수도자, 교회일치, 청소년 사목, 여성, 성체등을 다뤘다.

국제 기아문제 심포지움에 참석한 각국 연사들은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처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모든 크리스찬은 인류의 기아와 영양불량을 해결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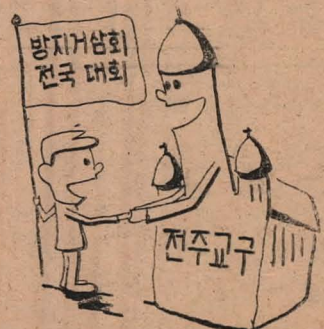
헬더 까마라 대주교는 「이시대의 가장 큰 스캔달은 3분의2가 넘는 인류가 의식주와 건강, 노동 희망이 없이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해있음을 깨닫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막대한 세계의 富가 보다 의롭고 인간적인 세계 건설에 사용되지않고 무기생산등에 낭비되고 있음도 우리 시대의 스캔달」이라고 경고했다.

인류의 3분의2가 非人間的 狀況에 처해 있고, 「하느님에 대한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방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들이 가장 큰 관심을 지니고 있는 최후의 심판 때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하나>에게 해주지는가, 해주지 않았는가 심판 기준이 된다고 성서는 가르친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참조: 마태오 25장 31-46절)

숲 정 이 산책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나에게 10원을...”

김 환 철(스테파노)신부

“나는 네가 살았을 때 먹은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으며, 적어도 매월 3만원, 5만원, 10만원 이상의 이익금, 혹은 봉급을 주었는데도 너는 나를 위하여 봉헌금 상자에 10원 아니면 100원을 감사의 예물이랍시고 봉헌했으니 나는 너를 정녕 모르노라.”(최후의 심판)

그대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천주님의 것(子女)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財物)도 함께 주님의 것으로 봉헌되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惡)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격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니코데오전서 6장6-10절)

주님은 “나보다도 부모나 처자나 전답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마테오 10장37절)고 하셨으니 우리는子女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0원짜리 부라보콘을 자녀에게 사주고 싶을 때 절약하여 주님께 예물로 바친다면 분명히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원을 봉헌 할 능력이 없을 때 밥 한 그릇을 끓여 주님께 봉헌한다면 이것은 자기보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컸기에 주님은 분명히 육신의 전강까지라도 보태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냉수 한잔이라도 나를 위하여 주었을때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보답해 주겠노라”(마테오 16장42절)

하느님은 자비 지극한 분이시지만 쉼없는 현금에 노하시어 재난이나 병고를 주시면 어찌 하시렵니까? “빛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 뿐입니다”(요한 12장35절)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때 어둠이 엄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처지에 따라 여유가 있을 때 보화를 천상에 많이 쌓아둡시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마테오 6장21절) 처자(妻子)도 가산(家産)도 명예도 그 어떠한 것도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께 봉헌한 그 예물은 天上에서 우리를 기꺼이 맞이해 줄 것입니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청소년의 종교관

박 종 진(아우구스티노)

인격 있는 청소년은 다만 고상한 근본주의와 이상만을 생각지 않고, 어려움이나 나쁜 표양에도 넘어가지 않으며, 어떤 일에 관해서도 그 소신과 이상에게 충실을 다할 것입니다.

이 확고함과 용기를 실천하는 첫째는 종교인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창시자인 키에르케고르도 실존의 단계를, 향락속에서 자기를 찾는 「미적 실존」, 양심에 따라 자기를 지키는 「윤리적 실존」, 신앙에 의하여 본래적 자기를 찾는 「종교적 실존」의 3단계로 나누고 종교적 실존을 최고의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청소년중에는 매일을 거저 놀며 갖가지 즐거움에 젖어있는 경우를 여러분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같은 청소년이 참으로 행복한지 저는 모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어 육체는 영혼의 행위를 방해하여 모든 죄악을 저지르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육체를 위하여 하는 이 같은 것을 적어도 그만큼은 주님과 영혼을 위해서도 생각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 세계의 도덕적 건물의 주춧돌까지 무너지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종교심에 불타 성복음의 가르침에 의한 전진한 원리에 따르는 우리 청소년 뿐입니다. 성아우구스티노가 말씀하시길 “신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지고(至高)의 실재이자 만물의 원인이고, 진선미(眞善美)의 근원이다. 사람은 신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므로 신을 인식하는 길은 오직 신을 사랑하는 데 있다.” 즉 신이란 전지(全知), 전능(全能), 전애(全愛)의 최고선이며, 모든 존재·지식·가치·행동으로서 인간생활의 절대규범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신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오늘은 학생으로서, 그리고 내일에는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의 인격을 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교훈삼아 나의 소신에 충실하겠습니다.」

천주의 섭리가 여러분을 어디에다 두시더라도 여러분은 확고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고 신념을 갖고 자기의 임무를 다하십시오. 니체는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하였다」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신은 죽었을까요?

우리모두 그리스도의 3덕목인 믿음(信), 소망(望), 사랑(愛)을 큰 덕으로 삼고 살아가는 청소년이 됩시다.
(전주 해성고 3년, 복자성당)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 춘 자(토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6219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한약방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부부배차장 옆
전화 ③4544

김 용 길 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정병준(성아우구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 은행 앞

전화 ②3519

□ 교리교실 ⑧ □

고린토 전서

소 순 형 부 제

저자와 수신인 : 고린토는 신약성서 당대 회람의 대도시였다. 바울로는 제2차 포교여행 중 51년 가을, 처음으로 고린토에 갔다. 그는 일년반 동안이나 많은 힘을 들여 고린토에 교회를 세웠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외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후 바울로가 에페소에 체류하는 동안, 그는 고린토 교회의 분파분열 소식을 듣게되었으며, 또한 그 교회는 바울로에게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해답을 주고자 바울로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 편지가 바울로의 친척임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

집필장소와 연대 : 이 편지의 16장 8절에서 보면 바울로는 이 편지를 에페소에서 기록했다. 바울로의 에페소 체류기간을 54년 가을부터 57년까지로 추산한다면, 이 편지는 그 중간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 편지 발송전에 한통의 편지가 보내졌고(고린전 5,9:11)-지금은 분실되고 없다-본 편지 발송후에 또 한통의 편지(고린토후서)가 에페소에서 기록되어 보내졌기 때문이다.

집필동기 : 고린토 교회에서는 바울로에게 많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중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분파분열 소식이었다. 그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는 이 분열사태 수습을 위해 편지를 쓸 필요성을 느꼈다. 그후 신자들의 대표가 바울로를 방문했는데 그들은 여러가지 질문이 들어있는 편지를 전달했다. 그 질문이란, 고린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었다. 바울로는 이 질문들에 답하고자 이 편지를 집필했다.

내용과 신학 : ① 1-6장은 고린토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부분이다. 그는 교회의 분파분열의 당파적인 정신을 거슬러 모든 사도들과 설교자들은 오직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봉사자임을 말하고, 모든 신자의 몸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되며, 교인끼리의 소송사건은 신도들 앞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② 7-16장은 고린토 교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혼인에 관한 문제, 우상앞에 놓은 제물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 육체의 부활 등에 대해서 말한다. 특히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예수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말하고,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의 기초가 됨을 말한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실과 그 부활로써 보증된 모든 죽은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신자들의 희망은 허무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바울로는 여기서 육신부활의 특징과 그 방식을 설명한다. 이 편지는 교회내의 신자생활 규범에 관한 실제적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 바울로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를 취급하면서도 보편적이며 영원한 진리에 기초를 두고 해결을 시도한다. 또한 이 편지는 초대 교회가 이방 사회에서 당면했던 여러가지 실제적 문제들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이 편지 13장의 '사랑의 찬가', 또 15장의 '부활론' 같은 것은 세계 문학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는 글들이기도 하다.

요심이 (160) 감명요

방지거삼회가 무엇이지? 방지거성인이 창립한 수도 단체로서

제1회는 성직자로 구성되고 제2회는 수녀님들로 제3회는 평신도들로 구성된 단체지

방지거4회는 없나? 그러면 없지 있지!

4회는 3회에 가입은 하였으나, 봉사활동에 잘빠지는 회원들을 말하지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0 1 3
김원준(야교버)

★ 교우 여러분께 특별활인 우대★

후·갈라·출사환영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③ 5 2 8 9

김금순 (테페사)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등 압(모이세)

금암동 ⑤5614 군산 3032

다가동 ②4342 부안 736

전 동 ②2143 정읍 2157

★ 각 지방 지점 구함 (계약금 없음)

한국 온수 연탄 보일러는

교형 여러분의 집을 따뜻하게 해 드립니다. 방을 수리하실 때나 집을 지으실 때는 교형 여러분의 집

부활 상 회로

연락처 전주시 전동 4가26-17

송약국 옆 매곡교 사거리

전주지점 대표 주원배(실베들)

전화 ③ 2 1 4 3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옥 (로모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④4007, ③7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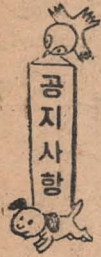
☆ 이(齒牙)는 오복(五福)의 요건 ☆

수석(水石) 치과의원

원장 김 현 (아오스딩)

전주시 중앙동 3가42-1
<박 소아과> 앞
전화 ② 1 6 6 5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인사발령 (76년 8월 10일자, (괄호)안은 계시던 곳)
김병업 신부...수류주임(남원), 김정원 신부...휴양(수류), 김봉희 신부...장계주임(김제), 이제후 신부...남원주임(고산), 박창신 신부...김계주임(순창), 박종상 신부...순창주임(휴양), 문규현 신부...고산 주임(전주), 김병환 신부...전동보좌(중앙)
□ 인수 인계...8월 23일, 임지부임...8월 24일
2. 혼인 관계 담당실 개설 및 담당관 임명
□ 담당관 판사...안복진 신부, 검사...박성운 신부, 서기...박진량 신부, 유장훈 신부
□ 혼인 문제에 대한 법적 상담 매월 1회(9월은 3일<금>), 교구 혼인 문제 담당, 주교 대리인 안복진 신부께서 상담에 응함
3. 신부 전체회의 (8월 26~27일)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 합니다.
4. 구속 사제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23일<월>) 오후 6시 명동성당, 9일기도 (8월19~27일), 선고 공판 (8월 28일<토>) 공정한 판결이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문정현 신부님은 교도소 안에서 영명축일 (8월 24일, 발도로메오)을 맞으십니다.
※ 교구장 김재덕(아우구스띠노) 주교님의 영명축일(8월28일)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수석보좌신부 한 함 섭
사 도 회 장 사 도 회 장 이 상 동

1. 유아 세례식 : 27일 (금) 어머니 미사 후
2. 전례 분과 위원회 : 28일 (토) 저녁8시
3. 대학생회 (중앙성당 소속) : 22일 공식미사 후
4. ※ 이 누갈다 묘지 제대 건립 현금: 이 아네스 가정 (5,000원) ◎감사 합니다.

(노충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 장 사 도 회 장 조 해 힐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교무금을 완납하여 신자의 본분을 다합니다.
3. 삼회 총회에 친구를 소개해 주신분과 피정 준비에 협조 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 장 사 도 회 장 김 용 환

1. 중·고등 학생회 신임 회장단 : 회장-이승교, 부회장-박철상, 이운상 총무-김순덕, ◎앞으로 학생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 많으시겠습니다.
2. 보 미사단 회의 : 공식미사 후
3. 공소 순회 미사 : 22일 (일)~24일 (화)까지 내동리-22일 오후5시, 전당리-23일 오후8시, 미산리-24일 오후8시,
4. 성당 건립 성금 수입 : 아직 수입하지 않으신 분은 8월 말일까지 수입해 주세요. ※ 지난주 성금 수입-장삼순, 김정규(각10만원) 김중원(5만원), 이귀연(5만원), 누계1,801,000원 ◎대단히 감사 합니다
5. 불우 이웃돕기 「폐품수집」-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①주관-학생회, ②수집물-신문, 잡지, 천책, 최불이, 박스, 병, 헌옷, 헌가구 등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 장 조 성 호

1. 추석 (9월8일) 합동 위령미사 : 각 가정은 민저가신 부모, 형제, 친척들을 위하여 봉헌 합니다.
2. 성당 도장 및 기념실 공사에 많은 협조 감사합니다.
* 도장공사 500,000원 *복자 기념실-501,000원
아직 수입하지 않으신 분은 속히 수입하여 성당 축성 10주년기념 행사에 협조 합니다.
3. 중·고등 학생 제2차 하기 연수회에 50명 출석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 장 박 장 훈

1. 반회합 : 24일 (화)-13반 (구13반 일부) ◎ 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도장 공사 현금 수입자 : 한형수 (30만원), 염영선(10만원), 오삼팔(7천원), 최화철(5천원), 유기선(3천원), 김경찬, 김선동, 김두홍, 박옥임, 이점석, 한인규(각2천원) 정운모, 정태너, 이인중, 임복희(각1천원)
3. * 주님께 약속한 교무금을 완납하여 어려운 우리 본당 도읍시다. *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문 규 현
사도 회 장 양 윤 모

1. 방저거 3회 전국대회 : 8월20일~8월22일 까지
2. 치명자산 제대 봉헌자를 기다립니다.
3. 예비자교리 : 수요일 <저녁8시-젊은 남·여>, 금요일 <저녁8시-남자 어른>, 주일<10시미사후-여자어른>
4. 어린이 미사 : 주일 오후 2시
5. 효자동 미사 : 주일 오후 5시, 금요일 (저녁8시)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수 신 태 인 음	영세자들을 축하합니다.	46,520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동 등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74,875원
		성모회 가정 봉헌 교무금 헌납에 협조해 주세요	9,800원			영세자들을 축하합니다 어린이 영세(보배)	80,320원 20,090원
제 2 지구	대 문 울 동 울 합	청년회 애령회.	42,560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충 동 덕 복 자 서 학 동 전	(28일)전례 분과 위원회 다음주 재속형제회 월례회 공소 순회미사 추석 합동 위령미사 봉헌 신자의 본분인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효자동 성당 아파트 현금감사합니다	128,225원 53,056원 29,230원 31,590원 31,270원 367,950원
		「성모성심」본당축일 우리아 회합 까리파스 월례회 구역장회	10,100원 100,005원 37,525원 27,11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축! 천호공소주보 축일 주일학교, 교리교사야유회	23,705원 30,746원	제 5·6 지구	무 장 전 남 순 입	본당 도서관 설치 견진자 교리 영세식 22일 피정(기도회)실시 28일 신앙강좌	28,085원 17,000원 25,590원 22,840원 18,035원
		연령회 월례회	2,5885원				